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제2차 시험 문제지

시험과목	민사소송법
------	-------

수험번호		성명	
------	--	----	--

【 A-1 】 (30점)

甲은 乙에게 수상레저용 보트를 판매하였는데, 乙이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잔대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음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 (1) 乙은 변론기일에서 “구매한 보트를 운행하던 중 엔진부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니, 상계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주장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면 乙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10점)

나. 乙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직후 甲을 상대로 “甲으로부터 구매한 보트를 운행하던 중 엔진부분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비용 5,000만원, 화상치료비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2,000만원 상당의 소극적 손해(일실이익)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10점)

- (2) 乙이 위 (1)의 본문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의 승소가 확정된 후 乙이 소송 외에서 위 (1)의 본문과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인가? (10점)

【 A-2 】 (20점)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乙의 주소지로 소장부분을 송달하였는데, 丙이 마치 자기가 乙인양 수령하였고 乙의 명의로 변호사 丁을 선임하여 丁이 乙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다음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1)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0점)

(2) 소송계속 중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5점)

(3)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소송상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5점)

【 B-1 】 (30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A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 (1) 제1심 소송진행 중 甲은 A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가. 제1심법원은 甲의 위 추가적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8점)

나. 위 소송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심리결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甲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이 예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12점)

- (2) 위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乙이 항소를 제기하자, 甲은 항소심절차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항소법원은 제1심과는 달리 매매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乙의 항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10점)

【 B-2 】 (20점)

甲은 의사 乙로부터 얼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에 부분적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甲은 乙에게 수술결과에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몰래 乙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 뒤 甲은 乙을 상대로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1) 민사소송법상 甲이 소제기 전과 후에 乙이 보유하고 있는 甲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2점)
-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녹음테이프는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8점)